

제9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

반포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회칙 「인간 생명」과 부부사랑



2008. 4. 24(목) 늦은 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제9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

반포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회칙 「인간 생명」과 부부사랑



2008. 4. 24(목) 늦은 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일 정 표

좌장 : 박정우 신부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19:00 - 19:10	인사말 / 염수정 주교 (생명위원회 위원장)	
19:10 - 19:40	제1발제	5 p
	회칙 「인간 생명」의 가치 재조명 / 맹광호 교수	
19:40 - 20:10	제2발제	23 p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가정 / 이동익 신부	
20:10 - 20:25	휴식	
20:25 - 20:55	제3발제	39 p
	부부관계에 생명을 주는 의사소통 / 박은미 교수 · 이규수 교수	
20:55 - 21:25	제4발제	49 p
	자연출산조절 교육의 현실과 전망 / 이숙희 대표	
20:55 - 21:25	종합토론	

생명위원회 정기 학술세미나는 4, 6, 9, 11월에 실시합니다.

제 1 발제

외식 「인간 생명」의 가치 재조명

맹 광 호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학대학 명예교수, 예방의학

회칙 「인간생명」의 가치 재조명(再照明)

1. 머리말-회칙 「인간생명」의 제정 및 반포 과정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 Humanae Vitae」이 반포된 것은 1968년 7월 25일이다. 그러니까 이 회칙이 반포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되는 셈이다.

‘출산조절에 관하여(On the Regulation of Birth)’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 회칙은 한마디로 부부들의 피임(contraception) 문제에 대한 그 동안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예컨대 자연적 가족계획방법(Natural Family Planning)을 제외한 모든 인공적인 피임 방법과 인공유산 등을 반대해 온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피임을 반대해 온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가톨릭 신자들로부터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피임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농경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된 인구증가 문제와 자녀를 갖고 안 갖는 일에 있어서 부부의 양심적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이런 사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회칙 「인간생명」은 반포 직후부터 교회 밖에서는 물론, 교회 안으로부터도 엄청난 반대와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960년에 개발된 경구피임약이 급속하게 전 세계 부부들 사이에 보급되면서, 그 동안 피임자체는 물론 피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인공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을 반대해 온 가톨릭교회로서는 어떻게든 피임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63년, 당시 교황 요한 23세는 피임과 인구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위해 3명의 평신도를 포함한 6명의 전문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그해 요한 23세 교황이 승하하심으로써 새로 교황이 되신 바오로 6세에게 이 위원회의 활동이 위임되었고, 이 일의 중대성을 인식한 교황 바오로 6세는 이후 3년간 이 위원회 위원수를 6명에서 13명으로, 다시 15명으로, 58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72명으로까지 증가시켜가며 큰 관심 속에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 위원회가 연구를 마치고 극비로 최종 보고서를 바오로 6세 교황에게 제출한 것은 1966년 말경이었는데 1967년 4월 이 보고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회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것은, 이 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이 가톨릭교회도 피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오로 6세 교황은, 이 보고서가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는 사실과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인구증가의 위협이 큰 저 개발 국가들의
어려움, 그리고 역시 많은 부부들이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하느님
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정과 혼인의 본래적 사명에 입각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1968년 7월 그 동안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내용의
「인간생명」 회칙을 반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에 교황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도 그가 폴란드 대주교로 있을 때, 이 연구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당시 공산주의 정권이던 폴란드 정부가 그의 로마 여행
을 불허 하는 바람에 위원회 최종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는데, 만일 그 때 그가 로마
회의에 참석을 했어도 위원회의 결론은 달랐을 것이라는 후문도 있었다. 그것은 이
미 1960년에 ‘사랑과 책임’(Love and Responsibility) 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혼인과 가정, 특히 자녀출산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가
르침의 중요성을 주장한 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황 바오로 2세는 교황이 된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칙 「인간생명」
의 가치를 역설했고, 이와 관련한 1981년 그의 문헌, 「가정공동체, Familiaris
Consortio」는 바로 「인간생명」 회칙 내용의 실천을 위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
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회칙 「인간생명」을 반포하신 교황 바오로 6세의 고민이 얼
마나 컸었는지는 회칙 반포 직후인 1968년 7월 31일 그를 알현하기 위해 모인 많은
신자들 앞에서 행한 다음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이제 이 회칙과 회칙을 준비하는 동안에 느꼈던 나의 심정을 꾸밈없이 밝히
려 합니다. 첫째로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연구하여 이 회칙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하였던 지난 4년 동안 내게는 이 무거운 책임감이 계속되었습니
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런 책임감이 내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스스로의 책임감을 이렇게 무겁게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힘이 자라는 데
까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었으며 많은 토론을 전개하고 많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몇 가지 환경만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와 전 인류에게 해답을
주어야 하였고, 내게 맡겨진 사도적 사명의 의무와 자유를 고려하여 교회의 오랜
전통, 즉 최근의 세 분 전임 교황들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하였습니다. 나는 또 공의
회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 스스로 선포해야 하였고, 선임 교황 요한 23
세가 설립한 특별 위원회를 더 확장하였고, 이 위원회가 제출한 결론을 받아들여
참고 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지혜롭게 살펴보아야 하였습니다.

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열광적으로 전개하는 치열한 토
론도 알고 있었고, 대중과 출판물들의 요란스러운 여론도 들었으며, 아버지요 목자
인 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존경할 만한 부부들의 어려
운 환경과 심각한 체험들도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연구와 위정자들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세계 인구 문제에 관한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문제의

분야별 연구나 복잡하고 중대한 사회 현실이나 급격히 변혁되고 있는 현대 생활 각 분야에 걸친 비판 등을 게재한 각종 출판물도 나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산더미 같은 논증 앞에서 나는 몇 번이나 당황하였으며, 인간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정하고 선포해야 할 끔찍한 사도적 사명에 스스로의 부당함을 몇 번이고 다시 느꼈습니다. 시대적 여론에 동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사회가 어렵게 받아들일 나의 의견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 멋대로 부부 생활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몇 번이나 주저하였습니다.”

2. 회칙 「인간생명」의 주요 내용

회칙 「인간생명」은 서론과 총 3부, 3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부가 인간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느님의 생명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며 그 만큼 어려움도 크지만 이 일은 부부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일이고 교회 또한 인간생명의 전달 사업인 부부들의 출산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서론’ 제1항에 이어, 제 I부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에서는 현대세계가 직면한 인구증가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들이 출산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임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제2항 및 3항), 따라서 교회가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4항에서 6항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이어 제 II부 ‘교리상의 원칙’에서는, 제7항 이하 13항까지 출산에 필요한 부부애와 부모의 책임, 그리고 부부행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출산이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4항에서 인공적 피임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6항에서는 생리적 임신주기를 이용한 자연적 출산조절방법 사용의 타당성을 설명한 다음 제17항에서 인공적 피임방법을 통한 출산조절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공적 피임방법 사용에 대해 회칙 제14항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이론의 기초적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 주장하는 바는, 직접적인 임신중절을 산아 조절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의견을 전적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적 낙태는 비록 치료의 이유라 할지라도 배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도권이 여러 번 가르친 대로, 남자이건 여자이건 영구적이건 일시적이건 직접 단종(斷種)시키는 것은 단죄해야 한다. 또한 부부 행위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피임을 목적하거나 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해야 한다. 또는 고의로 피임하는 부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덜 크다고 생각되는 악을 택해야 한다든지, 부부 행위는 피임할 때의 행위도 그 전후에 임신할 때의

행위와 함께 하나의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행위가 같은 하나의 윤리적 선에 참여한다는 따위의 이유를 끌어대는 것은 타당치 않다. 물론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나 탁월한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덜 큰 악을 묵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악을 행함으로써 선을 결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즉 본질적으로 윤리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답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간 사회의 선을 옹호하고 촉진할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지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의로 임신을 불능케 함으로써 내적으로 이미 악하게 된 부부 행위도 임신할 수 있는 부부 생활 전체와 함께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그릇된 생각이다”

이에 반해, 제16항에 언급하고 있는 자연적 출산조절방법 사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에서(3항) 말 한 바와 같이 부부 생활에 관한 교회의 이 같은 교리에 반대하여 현대 사람들은 비이성적 자연이 부여한 힘을 조정하여 인간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지배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권리이며 사명이라고도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산아를 인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화목에 이바지하고 이미 출생한 자녀들 교육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진대 현대 환경을 보아 산아 제한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한다. 이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주어야 하겠다. 이성을 갖춘 인간이 창조주와 긴밀히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 이성의 작용을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찬양하고 권장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물의 질서를 지킨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이유이건, 또는 외적 환경의 이유이건, 다음 출산과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부는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 불임시기에만 부부행위를 함으로써 방금 설명한 도덕률을 거스르는 일이 없이 산아를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바이다.

교회는 부부가 불임 기간을 이용해도 좋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임신을 직접 방해하는 방법의 사용은 아무리 정당하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제시한다 하여도 언제나 부당하다고 배척하면서 교회는 그 가르침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실이 두 가지 경우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첫째 경우에는 부부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경우에는 부부가 출산의 자연 질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두 경우 다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이유로 부부가 임신을 피하자는 데에 확실히 동의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첫째 경우에 있어서만 부부가 정당한 이유로 자녀의 출생을 원할 수 없을 때마다 임신가능 기간에 부부 행위를 절제하고 불임시기에는 부부애를 증거하며 약속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부부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참되고 완전한 사랑을 증거 하는 것이다.

한편, 제19항에서부터 시작되는 제 III부 ‘사목 지침’에서는 이 회칙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특히 국가지도자들에게(23항), 학자들에게(24항), 그리스

도 신자부부들에게(25항), 의사와 의료인들에게(27항), 사제들에게(28항), 그리고 주교들에게(30항)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3. 새롭게 조명되는 회칙 「인간생명」의 예언적 가치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반포된 「인간생명」 회칙은, 그러나 놀랍게도 해를 거듭해 갈수록 그 참된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회칙 반포 20주년, 30주년을 맞는 시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이 회칙 반포를 기념하는 모임이 이어진바 있다. 회칙 반포 40주년을 맞는 금년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회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회칙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많은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교황 바오로 6세께서 회칙을 반포하면서, 만일 교회가 인공적인 피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일어날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지금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 이 회칙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점차 교황님의 예언적인 결단이 옳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첫째로, “광범위한 인공적 피임의 사용이 결국 부부간의 신뢰와 도덕적 민감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경고한 바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과 가정파탄은 물론 성병과 혼외출산, 그리고 인공유산과 여성 및 어린이 학대의 증가 등이 모두 부부들의 지나친 피임사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부부간의 성적 행위를 ‘내어주는 성’이 아닌 ‘소유하는 성’으로 전락시킨 인공적 피임에 대한 교황님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교황 바오로 6세는,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공적 피임이 여성들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여성을 남성들의 성적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mere instrument)로 전락시킴으로써 남성들이 더 이상 여성의 건강과 임신에 대한 책임감이나 배려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것 또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바오로 6세 교황은 인공적 피임이 국가권력 등에 의해 ‘위험한 무기’(dangerous weapon)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대한 경제지원 조건으로 강력한 피임사업을 요구한 일이라든지 한 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불임수술을 권장했던 일들이 바로 그 좋은 예다.

넷째로, 교황 바오로 6세는, 피임을 통해 여성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축복 받아야 할 여성의 임신이 마치 피해야 할 대상이고 ‘치료받아야 할 질병’(infection to be treated)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임신을 통해 태어나는 인간 생명을 적대시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오늘

날 가정 안에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피임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생명경시 풍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처럼, 피임기술(contraceptive technology)은 단지 인구의 수적 증가만을 막은 데 쓰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은 물론, 임신을 위한 남녀간의 조화로운 성적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피임기술에서부터 시작된 생식기술(reproductive technology)은 체외수정과 복제, 그리고 유전자조작과 배아 실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회칙 「인간생명」을 반포하시던 바오로 6세 교황의 고민과 우려의 진정성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 했지만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4.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과 그 작용원리

출산조절에 관한 회칙 「인간생명」은 단지 가톨릭교회가 인공적 피임방법 사용을 반대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반포된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인구문제와 자녀출산 조절의 필요성 때문에 고민하는 국가나 부부들에게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잠시 살펴 본 것처럼, 실제로 3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회칙은 현대세계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 빈곤 문제 등에 대해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런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얻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연구와 논의를 했다는 것을 밝힌 다음,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시된 인공피임방법들은 앞서 언급한 교황님의 우려 표명에서와 같이 보다 더 중대한 문제들, 예컨대 인간 생명과 혼인 및 가정의 본질을 해치는 무서운 부작용(consequences)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칙은 1967년 역시 바오로 6세 교황이 반포한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 밝힌 내용, 즉,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간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법은 인간과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물질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과 인류 사회 전체의 경제적 내지 사회적 발전이 인간의 참된 가치를 존중하고 촉진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가톨릭교회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회칙 「인간생명」은, 교회가 인간생명과 혼인 및 가정의 본질을 유지하고 증진할 뿐 아니라 부부들의 출산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출산조절방법의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가톨릭교회는 보

다 많은 부부들이 이 방법을 배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부부들이 이 방법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가 출산조절이 필요한 부부들로 하여금 자연적인 출산조절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회칙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그러므로 부부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이유이든 외적 환경의 이유이든, 다음 출산과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부는 생식능력에 내재하는 자연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간에만 부부행위를 함으로써 도덕률을 거스르는 일이 없이 출산을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바이다. (중략). 자연주기를 이용한 출산조절 방법과 인공적인 출산조절 방법 사이에는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경우는 부부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경우는 부부가 출산의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첫째의 경우, 부부가 정당한 이유로 추가적인 자녀의 출산을 원하지 않을 때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부부가 부부행위를 절제하고 불임기간에 부부애를 나누며 약속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부부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참되고 완전한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자연주기를 이용한 소위 자연적 가족계획방법(Natural Family Planning)들의 원리와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가톨릭신자 부부들조차도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원리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방법이 피임효과도 낮고 배우기도 어려워 아무나 사용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은 여성의 난자(ovum)와 남성의 정자(sperm)가 만남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남성의 정자는 수시로 남성의 생식기인 고환(testis)에서 만들어지지만 여성의 난자는 복강 내 난소(ovary)라는 곳에서 한달에 단 한번, 한 개씩 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편, 남성의 정자는 여성의 생식기관 내에서 보통 사흘 내지 닷새 동안 생존해 있지만, 여성의 난자는 여성의 몸속에서도 단 하루밖에 살지를 못한다. 따라서 임신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살아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며칠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난자가 나오는 것(이것을 배란이라고 함)은 여성의 월경 주기의 길이에 관계없이 그 주기가 끝나는 날, 즉 월경이 시작되기 전날로부터 약 2주일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임신은 여성의 다음 월경이 있기 2주 전 약 1주일 정도 기간에 부부가 만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밖에서는 아무리 부부가 만나 부부행위를

한다 해도 임신은 되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달 중에도 임신은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자연주기를 이용한 피임이란 이렇듯 임신이 되는 기간을 알아내서 이 기간동안 부부가 금욕(abstinence)을 함으로써 임신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알아내는 것이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이 시기를 이용해서 임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임신이 잘 안되는 많은 부부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임신에 성공하는 일이 많다.

중요한 일은 바로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인데, 신기하게도 여성의 몸에는 배란시기를 전후해서 여러 가지 증상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과 변화를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하면 누구나 쉽게 이 시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배란시기를 알아내서 이를 피임 또는 임신에 이용하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서 얘기 한 것처럼 단지 다음 월경 2주전에 배란이 일어난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시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소위 ‘주기법’(Rhythm Method)라고 불리는 오기노식 달력주기법이다. 이 방법은 1920년 일본의 오기노 규사쿠 라는 의사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배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기 5일간과, 여성 생식기 속에 들어간 정자의 생존기간 3일을 합한 8일간을 수태 가능기간으로 하여 예정월경의 개시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12~19일까지 8일간을 금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계산에 의한 것이어서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 예정월경 개시 일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은 자연가족계획방법으로 권장이 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지금 많은 나라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호주 빌링스 박사의 ‘점액관찰법’(Billings Ovulation Method)이다.

1972년 세계적인 의학전문잡지 Lancet에 처음 발표됨으로써 주목을 받은 이 방법은 배란시기에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자궁입구 점액상태를 관찰함으로써 배란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서 임신이나 피임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면서 신경과 의사로써 평소에도 효과적인 자연적 피임 방법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던 빌링스 박사로서는 회칙 「인간 생명」이 반포된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원래 우리 몸에서는 각종 점액들이 분비된다. 침샘에서 나오는 침이라든지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도 모두 생리적으로 필요할 때 나오는 일종의 점액이다.

점액관찰법에서 말하는 점액은 여성의 자궁입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배란 시기에 남성의 정자가 자궁 속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분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여성이 질 입구에서 점

액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배란이 가까워 올수록 점액은 맑고 길게 늘어나는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누구나 배란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배란이 되지 않는 시기, 즉 월경직후에는 점액도 분비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은 이 시기에 밑이 매우 건조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평소 배란시기에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사람은 이런 점액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이 된 기쁨>이라는 책을 쓴, 잉그리트 트로비쉬 라는 미국의 여성작가는 그의 책에서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강의하면서 나는 자궁경관의 점액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여성들에게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와 같은 증세를 알고 있었지만 단지 그것과 임신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쓰고 있다.

빌링스 점액관찰법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된 또 하나의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으로 ‘증상체온법’(Sympto-Thermal Method, STM)이라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은 배란시기에 여성의 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 예컨대 하복부 통증, 유방에 느껴지는 압통, 소량의 질 출혈, 그리고 성감 변화 와 체온 상승 등을 관찰함으로써 가임 시기를 알아내는 것으로 1970년대 초 오스트리아 의사 조셉 뢰쩌 (Josef Roetzer) 에 의해 개발된 방법이다.

주로 유럽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방법은 배란시기의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배란시기를 예측하고 이 시기에 금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만큼 피임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이 의학전문지 ‘휴먼 리프로덕션‘ (Human Reproduction)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900명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이 방법의 피임효과를 장기간 관찰해 본 결과 임신율이 100명당 0.4건에 불과함으로써 일반 피임약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자연적인 출산조절 방법을 이용하여 부부가 피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인이 되는 여성들이 자신의 배란증상을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배란시기를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며, 남편 되는 남성들은 부인과 협조해서 배란을 전후한 일정기간 함께 성적 충동을 자제하고 금욕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톨릭교회가 피임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이런 자연적인 출산조절 방법의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일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더 키워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조사연구들을 보면 인공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부들의 경우 지금 매년 두 쌍의 결혼 가운데 한 쌍이 이혼으로 파탄을 경험하는데 반해 자연적인 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하는 부부들은 거의 이혼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주기적인 금욕생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부부 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금욕을 하게 된다. 예컨대 부인이 몸이 아프다든

지,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 있다면 어차피 부부 행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가운데 아이를 갖고 안 갖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금욕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부사이의 피임 문제는 피임방법의 문제라기보다 부부가 이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기로 약속하느냐의 부부 사랑과 신뢰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회칙 「인간생명」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단체 들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은 반포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비난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실천하려는 많은 노력 또한 없지 않았다.

많은 교회 지도자와 윤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고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 회칙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 가톨릭 생명과학자들, 특히 의사들이 회칙에서 권장하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회칙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가족계획 방법들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부간의 협조와 신뢰가 바탕이 되고 여성의 배란증상을 잘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전 세계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지키고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 함께 배란증상 관찰에 관한 교육이 실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초 이후, 꾸준히 이런 노력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제기구와 국제연구기관 들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빌링스 배란법 국제협회 (World Organization Ovulation Method Billings, WOOMB)

<빌링스 배란법 국제협회>는 1970년대 초, 호주 멜번 시의 신경과 의사인 존 빌링스 박사(John Billings)와 산부인과의사인 린 빌링스(Lyn Billings) 박사에 의해 조직된, 배란법 보급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빌링스 배란법을 보급하는 단체들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한 가정운동>도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 협회 회원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해마다 빌링스법 보급 인증서를 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단체 참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란법을 개발한 빌링스 박사는 그 공로로 세계 여러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1년에는 교황청으로부터 ‘교황 기사 작위’(Papal Knighthood)를, 그

리고 2002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자랑스러운 가톨릭의사에게 주는 공로메달을 받기도 했다.

빌링스 박사는 2007년 4월 2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의 배란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임신 또는 피임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빌링스 배란법 국제협회>는 빌링스 점액관찰법에 대한 연구와 자료개발을 위한 기관으로 Ovulation Method Research & Resources Centre of Australia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국제 가정생활 증진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Family Life Promotion, IFFLP)

<국제가정생활증진협회>는 종교와 관계없이 인공적 피임방법을 반대하고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널리 보급하려는 사람들이 1974년 미국 워싱턴에서 발족한 국제기구로, 여러 가지 자연가족계획방법과 함께 특히 가정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했던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 예방의학 전문의사인 클로드 랑또(Dr. Claude Lanctot)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 협회는 그 범종교적인 협회의 성격상,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나 미국 해외원조처(USAID) 등으로부터 활동자금 지원을 받는 등 한 동안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00개 단체가 참여해서 4년 내지 5년마다 대 규모 국제학술대회도 갖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가정운동>이 1974년 협회 창립당시 15개 준비모임 대표의 하나로 참석했으며, 한 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운영위원 단체로 이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고 랑또 박사가 한국에도 두 차례 방문하고 우리의 자연가족계획 보급 활동을 격려한 바 있다.

3) 바오로 6세 연구소(Pope Paul VI Institute)

1985년,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토머스 힐저스(Thomas Hilgers)가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시에 세운 이 연구소는 바로 교황 바오로 6세가 그의 회칙 「인간생명」에서 가톨릭 의사들에게 요청하신 내용, 즉 자연적 출산조절 방법의 개발과 연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다. 힐저스 박사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가톨릭계 대학인 St. Lois 대학 의과대학과 Creighton 대학 의과대학에 자연가족계획 교육 및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가 개발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인 소위 Creighton Model Fertility Care System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자연가족계획 지도자와 의사들에게 훈련시켜 오고 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자연가족계획 지도자와 3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이 훈련

을 받고 이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인간생명 국제연맹 (Human Life International, HLI)

1981년, 미국의 분도회 신부인 폴 막스(Fr, Paul Marx)가 워싱턴에 세운 <인간생명 국제연맹>은 주로 전 세계적인 인공유산 반대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인공유산의 대안으로 자연가족계획을 사용하도록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전개하고 있다. 원래는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 시에 있는 St. John's 대학의 인간생명 센터(Human Life Center)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의 정신에 따라 자연가족계획방법을 보급하고 인공유산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출발한 이 국제연맹은 1981년에 워싱턴으로 사무국을 옮겨 지금 전 세계 약 50여 개국 생명단체들과 연대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와 90년대에 <행복한 가정운동>이 이 단체와도 연결을 맺고 함께 활동을 했다. 이런 인연으로 폴 막스 신부는 한국에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6. 회칙 「인간생명」과 한국교회의 노력 -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인공적인 피임방법 사용을 거부하던 부부들이 사용하던 자연가족계획 방법은 주로 재래식 달력 주기법이나 기초 체온법이 전부였다. 물론 이런 방법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부부들 스스로 이런 저런 책을 찾아 읽어보고 사용하는 정도였다.

가톨릭교회가 오래 전부터 인공적인 피임방법 사용을 반대해 오면서 자녀 출산조절이 필요한 경우 그 대안으로 자연적인 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하라고는 말해 왔지만 효과적인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온 적은 없었다.

그러던 차에,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이 반포되면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가톨릭 신자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침 당시 주교회의 가정사목 담당주교였던 춘천교구장, 박 도마(Thomas Stewart) 주교가 직접 호주의 빌링스 박사를 만나 콜롬반 수녀회 수녀 두 사람이 빌링스 점액관찰법을 단기 교육 받도록 했으며, 1972년 5월 이후 이들이 주로 춘천과 목포 성 콜롬반 병원에서 빌링스 점액관찰법을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자연가족계획 보급 활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에 열린 한국주교회의에서는 '인공유산과 피임'에 관해 토의하고 피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부부들을 돕기 위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지도와 보급의 필요성을 결의하고 한국 가톨릭병원협회에 관련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1973년 2월 한국 가톨릭병원협회에

<한국 행복한 가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 후, 1973년 7월에 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가톨릭의과대학 맹광호 교수가 4개월간 호주에 보건 및 병원행정 연수를 다녀오면서 호주 빌링스 박사를 만나 이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귀국하자마자 가톨릭여성연합회와 함께 우선 전국적인 지도자 양성 및 성직자, 수도자 교육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1975년 5월 28일 가정생활교육과 자연가족계획 방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전국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초대 회장에 당시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였던 조규상 교수를 선임하고 맹광호 교수가 간사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후,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전국협의회는 각 교구에 행복한 가정운동 교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가톨릭계 병원에 빌링스 점액관찰법을 보급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 했다. 특히, 가톨릭의과대학 산부인과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지도자 양성은 물론 빌링스 배란법 사용자들에 대한 의학적 상담과 이 방법의 피임효과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의 이런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앞서 소개한 <빌링스 배란법 국제협회>나 <국제 가정생활증진협회>, 그리고 <인간생명 국제연맹> 같은 국제적인 단체들과도 협력하며 이들 단체 모임에서 한국에서의 자연가족계획방법 보급 실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1984년 11월 7일과 8일에는,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전국협의회 활동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대회를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병원협회, 그리고 가톨릭간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가톨릭의과대학에서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 때 호주의 빌링스 박사 내외와 미국 <인간생명 국제연맹>의 폴 막스 신부를 연자로 초청하고 전국 각 교구 주교님들을 포함한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매우 성대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1985년부터 맹광호 교수가 전국협의회 회장을 맡아 약 5년간 활동을 하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성모병원에서 상담 지도자로 활동해 온 조혜옥 간호사에게 전국협의회 회장 직을 넘겼다. 이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 이 때 어느 정도 교구마다 가정생활교육과 자연가족계획 지도를 위한 지도자들이 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구 차원의 활동에 치중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이후에도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전국협의회는 교구 지도자 워크숍과 생명의 날 행사 등을 주관하면서 각 교구에서의 자연적 가족계획 교육과 보급 활동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들어 전국협의회 활동은 물론 각 교구에서의 활동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나마 각 교구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혼인강좌에 자연가족계획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7. 맺는말

회칙 「인간생명」이 반포되던 1968년은 인구증가문제를 전 세계적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국가들이 인구증가를 막는 일에 총력을 다 기울일 때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경우, 출산을 줄이는 일을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였고,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인구정책을 경제적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정도였다.

때맞추어 개발된 경구 피임약이나 자궁 내 장치, 그리고 불임수술은 물론, 인공유산까지도 출산조절 방법으로 채택해서 장려하는 나라들이 속출할 때였다.

이런 상황에, 이런 피임방법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회칙 「인간생명」이 불러일으킨 반응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앞서, 이 회칙을 반포한 교황 바오로 6세의 고통스런 결단의 심정을 일부 밝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이 회칙을 반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인공적 피임의 만연상태가 가져올 생명경시 풍조와 결혼 및 가정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그리고 이런 교황의 우려는 이후 어김없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지금 회칙 「인간생명」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 반포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그러나 그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이라도 그의 회칙이 담고 있는 정신, 즉, 인간생명과 그 생명을 전달하는 혼인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신자들이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과 이 회칙의 실천을 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목적 권고, <가정공동체>를 읽도록 해야 한다. 가령 소공동체 반 모임 등에서 이런 문헌을 읽고 묵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꾸준히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런 문헌들에 대한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생명과 혼인, 그리고 가정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이해하게 되면 신자들은 스스로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부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혼인 및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부부간의 협조와 신뢰, 그리고 주기적인 금욕생활로 가능한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실천도 결코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 일에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이 반포 된지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온통 그가 우려했던 생명경시와 가정의 붕괴현상으로 증병을 앓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가톨릭신자 부부들이 그의 예언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생활을 함

으로써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Pope Paul VI. *Humanae Vitae*. Encyclical Letter of Paul VI on the Regulation of Birth (English version). St. Paul Publications. Victoria, Australia.
2. Chaput, CJ. *On Human Life*. A pastoral letter to the people of God of northern Colorado on the truth and meaning of married love (by the Archbishop of Denver). Addressed on July 22, 1998.
3. Smith, J. *Humanae Vitae: A Generation later*.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Washington D.C. 1991.
4. 맹광호, 조규상. 현대 한국천주교회와 행복한 가정운동. 한국교회사 논문집 II.1003-1123. 1985.
5.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행복한 가정운동 25년(1975-2000).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서울. 2000.
6.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전국협의회. 점액관찰법: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1985.

제 2 발제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가정

이동익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학술연구위원장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가정

1. 성서적 기초

혼인과 가정에 관한 성서적 주제 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의 3가지, 즉 일치, 사랑, 계약이다.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단순히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치”의 관계이다. 말하자면 상호의 행위 안에서 형성된 일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상호 행위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된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실천되는 상호 행위를 의미한다(창세 9,8-17: 15,1-3. 17-19 참조). 이렇게 표현되는 일치는 계속해서 일치적이고도 결정적인 내용으로서의 사랑을 지니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제공되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인간 측의 응답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혼인 및 가정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로부터 제시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혼인을 통해서 결합된 남녀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된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으셨다는 ‘관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데 그러한 관계가 혼인 안에서의 남녀의 결합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고유하고도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이다(『가정공동체』, 19항 참조). 이는 가나안의 종교 전통 안에서처럼 성(性)이 신적 축복을 효과적으로 현존케 하고 보증하는 일종의 자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상호적인 관계이며, 따라서 사랑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성은 사랑에 봉사하는 것이지 역으로 사랑이 성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직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다.

첫째 요소는 “신랑”에 관한 텍스트를 소개하고 있는 (마르 2,19이하, 요한 3,29 참조) 혼인잔치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과 사실상 메시아적 잔치(마태 22,1-4, 25,1-12)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표현이다. 계약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러한 표현에 의하면 구원의 관계는 남녀의 혼인 관계와도 같다. 왜냐하면 이 혼인 관계가 지니는 본질적인 가치는 상호간의 주저없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에서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의 지혜와 인류와의 계약(8항, 10항), 또한 지혜가 우리 인간을 만나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또한 신부처럼 그 지혜를 만나러 나가는 것(지혜 8,7-8, 9-16 참조)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한다. (『가정공동체』 8항, 10항)

둘째 요소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혼인관계에 대한 것이다(에페 5,27 참조).

혼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창조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부여해 놓으신 그 계획이 완전히 드러났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그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참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1)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과 그들 가정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자리 잡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혼인이란 계약의 신비 안에서 정확하게 실현되고 표현된 지성및 창조적 의지인 것이며, 따라서 이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회학적 부수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2) 성서적 전승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은 일부일처제 안에서 볼 수 있는 확고하고도 독점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혼인의 인간학적 범위이다. 즉 계약의 전체 과정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의 변천과정)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인간학적 범위이다. 이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교회는 가정이 자신에 대한 심오한 진리의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교회는 이 길을 그리스도의 학교와 성령의 조명하에 해석된 역사의 학교에서 배웠다. 교회가 이것을 덮어씌우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쁜 소식이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큰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제안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정은 자기 존재의 충만과 사랑의 완성을 달성할 수 있다”(『가정공동체』, 86항). 사실 사랑은 인내없이, 그리고 죽음 없이는 사랑 자체가 지니고 있는 충만하고도 충실한 진리에 도달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혼인과 가정의 교회론 및 그리스도론적 지평이며, 또한 인간학적 지평에서도 조명되는 특징인 것이다.

3)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교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관계에서의 “가정” 개념이다. 이 개념 역시 인간학적 및 신학적 실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둘은 서로를 설명해 주는 동시에 서로의 이해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가정의 고유한 범위 안에서 “교회”, “가정 교회” 혹은 “소규모의 교회”로서의 임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가정공동체』 49항 참조). 요한 바오로 2세도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을 교회의 확실한 한 형태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성서의 사상이나 전통적인 교회의 사상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교회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부와 교회에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설립되었다면, 즉 사랑의 일치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리고 가정도 남자와 여자, 자녀들의 상호 증여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의 신비체라면, 결과적으로 이는 분명 말씀의 강한 의미 안에서 “성서적” 및 “교회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의 성사성 역시 같은 맥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한 이 성사성은 그러한 교회론적 특성 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교회의 가치가 이렇듯이 가정에서부터 드러나고 시작되는 것과 같이 가정의 가치 역시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고 결정한다. “하느님의 가정”인 교회에 대해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 6항은 성서의 풍요로운 의미를 담은 텍스트를 통해서 매우 훌륭하고도 간단 명료한 문장을 제공해 준다: “교회는 또한 ‘높이 솟은 예루살렘’이라 혹은 ‘우리 어머니’라고도 부른다 (갈라 4,26; 묵시 12,17). 또 순결한 어린양의 순결한 신부로도 표현되며 (묵시 19,7; 21,2,9; 22,17),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하시어 당신 몸을 바치심으로써 그들 거룩하게 하셨으며’(에페 5,26), 풀지 못할 계약으로 당신과 결합시키시고 그를 ‘양육하시며 보호하신다’(에페 5,29). 또한 그가 깨끗한 몸으로 당신과 결합되어 사랑과 충실로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으며 (에페 5,24), 마침내 그에게 영원한 천상 은혜를 풍부히 내리시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었다 (에페 3,19). 교회가 주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천상의 행복을 사모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 신랑과 함께 영광스러이 나타날 때까지는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골로 3,1-4)”.

이러한 교회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따라서 사랑의 새 계명으로써 모든 인간을 환영하고 존경하며 봉사해야 하며, 또한 “교회는 가정의 사랑 덕분에 좀 더 가정적 차원을 지니고 더욱 더 인간적이고 형제적 관계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발전시켜야만 한다”(『가정공동체』, 64항). 곧 교회는 그러한 점들을 이 세상에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 구성원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예수의 형제들이(마르 3,31-35) 될 수 있도록 좀더 친근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 혼인의 의미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세례받은 자의 결혼은 신약의 칠 성사 중의 하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쳐 왔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 이 혼인의 효과는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신자들의 육체적 및 인간적 일치라는 의미를 통해서 혼인에 관한 모든 진리가 “밝혀진다”는 것이다(『가정공동체』, 13항).

신자들은 세례성사의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는 진정 새롭고 영원한 계약,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다운 계약 안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한다”(13항).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요한 13,35 참조)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러한 부르심은 세례 받은 모든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소명이다. 이러한 소명은 그들의 사랑을 위한 모든 관계에 나타나야만 하며, 자녀의 사랑, 형제적 사랑, 부성애 혹은 모성애, 부부애 혹은

우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들의 사랑은 항상,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든지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 혼인성사에 의해서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온전하게 떠맡게 되며, 또한 이로 인해 “창조주로부터 의도된 부부사랑과 생명의 친밀한 공동체”(13항)를 이루어야 할 소명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함께 하나의 살아있는 표지가 되며, 이에 대해서 부부는 서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희생하신, 자비와 사랑의 ‘기억’이며 ‘기념’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활력이 되고 생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을 완성하는 것이며, 이 땅위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충만한 사랑과 미리 비추는 광채, 혹은 예언자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들로 부터 그들의 전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한다.

이러한 증명은 매일, 매순간 조용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아 산위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 사랑의 위대한 행위를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각각의 빵 조각과 포도주 잔이 이 세상의 모든 제단 위에서 쪼개지는 것처럼 부부들에게서 실현되어야 한다. 인간을 위해서 온전하게 당신 자신을 죽음에 부치셨고, 당신 성령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하느님 예수의 자비는 우선적으로 부부로부터 드러나게 되며, 그 방법은 대화를 통한 그들 상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며, 일상적인 것들을 극복하면서 항상 서로에게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일치를 지향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안에서 부부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내어 주는 전적인 자기 증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할 것이며, 당신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부부로서의 거룩한 순간을 항상 체험하게 할 것이다.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위한 임무, 의무, 그리고 환경들은 부부들에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성장하게 할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와 풍요로운 생명을 위한 희생은 결코 그들로 하여금 단순한 명령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승리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혼인계약의 빛으로 남녀의 혼인이 이끌려진다는 혼인성사의 새로운 의미는 부부에게 또한 자비와 신뢰, 그리고 생명을 위한 봉사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순수하게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선 자신들의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의 강한 끈을 맺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변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혼인성사를 위한 어떠한 준비라도 이런 점을 위한 교육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부부들은 분명 하나의 공허한 약속만 하게 될 것이고 부부들에게서 찾아야만 할 부부애의 생명력있는 의미는 결국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3. '가정 교회'로서의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임무와 그 절대적 독창성은 교회의 산 모상이요 역사적 표현으로 심화되어 드러나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소규모의 교회(가정 교회)'이다. (『가정공동체』, 49항 참조)

3.1. 가정의 교회론적 구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0년 가정 문제에 관한 세계 주교대의원회의의 개막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생활하고 완수하는 곳이 곧 가정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시노드의 주요 테마입니다. 복음화에 관한 1974년도의 세계 주교대의원회나 교리 교육에 관한 1977년의 주교대의원회가 모두 가정과 관련되는 주제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정에서부터 그 모든 것의 참된 활력이 솟아난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가정은 복음화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며, 또한 교회의 교리 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정은 가장 필수적이고도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주체, 곧 창조적 주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이 주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항구하고 영성적인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가장 기초적인 범위 안에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ecclesia domestica), 가정은 반드시 특수한 양상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사명을 위한 고유한 몫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황의 이러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범위나 내면적인 역동성은 곧 그리스도인 가정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교회론적 구조의 이러한 고유성이 교회 자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3.2. 교회론적 구조의 구성요소

그리스도인 가정의 교회론적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한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그리스도교의 구세사적 경륜 안에서 가정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참여의 기초, 내용, 특성을 좀 더 잘 인식하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을 연결하고, 가정을 ‘소규모의 교회: 가정교회’로 설정하는 여러가지 깊은 유대를 고찰해야 한다. 이 유대로 인해서 가정은 독특한 방법으로 교회의 신비의 산 모상이요 역사적 표현이 된다”(『가정공동체』, 49항).

2) 깊은 유대란 무엇인가? 가정이 비록 교회 안에서 사회학적으로 상관 관계

가 있는 어떤 실제와 관련된다 하더라도, 또한 가정이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윤리 유형과는 거리가 멀다. 이 유대란 혼인성사에서부터 드러나고 심화되는 관계이며, 이 관계로 가정은 성숙된다 (이는 단순히 의지적 행위로부터만 성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유대는 본질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어떤 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신비체의 생동력있는 하나의 세포로서의 그리스도적 가정을 형성시키는 교회인 것이다.

3)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로운 결합은 따라서 부부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실재를 성스러운 끈을 통해 교회의 친밀한 생명으로 연결하는 ‘깊은 유대’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부부의 삶, 곧 가정 전체를 ‘성체성사적 삶’과 연결시켜 준다. 왜냐하면 혼인 안에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거룩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신적 에너지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부부애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모든 역동성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이며, 그 반대로 아내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가정 곳곳에 퍼져 나가는 신비로운 힘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 성체성사적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3. 가정 교회의 사명

위에서 살펴본대로 존재론적인 구조의 사고로 다음과 같은 가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가정은 그 자체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된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로부터 영양을 받아 자라기 때문이다. 곧 하느님의 말씀, 성사, 애덕의 실천 등등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다.

2) 교회 역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부부와 부모에게 주어진 선물은 그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들은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역할에 고유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소명도 갖는 것이다”(『가정공동체』 49항). 바로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들은 “지칠 줄 모르고 너그러운 사랑의 모범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며, 사랑의 형제적 유대를 맺어 주고, 결실 풍부한 어머니인 교회의 증인이 되고 협력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당신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들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 사랑의 표지가 되며,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교회헌장』, 41항) 불리움을 받은 것이다.

3) 가정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가정은 독창적이고 특수한 양식으로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이며 책임있게 참여할 소명과 아울러,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됴됨이와 기능을 활용하여 교회와 사회

에 봉사할 소명을 받고 있다”(『가정공동체』, 50항)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가정의 이러한 특수성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협동과 증거로써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부부로서의 배우자 상호간에,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협동과 증거생활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친교의 선물은 공동체적 봉사로 드러나게 된다. 『가정공동체』는 이렇게 언급한다: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양식은 공동체의 유형을 따를 필요가 있다 부부인 배우자들과 가정을 이루는 부모와 자녀는 함께 교회와 세계에 봉사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활력을 주는 사도적 열성을 나눔으로써, 또한 교회와 시민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공동으로 투신함으로써 신앙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사도 4,32)이 되어야 한다”(『가정공동체』 50항).

4) 그러면 어떤 것이 공동체적 활동과 증거의 내용이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말해서 부부애와 그 견고함, 일치, 그리고 신의와 출산력까지도 포함하는 가정의 가치와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랑을 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배우자 및 가족들 간의 삶의 모습이며, 그 모습은 곧 가정의 일상에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사목현장』, 48항 참조).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언직, 사제직 및 왕직이라는 소명으로 참여하게 되며, 그외에도 가정의 존재론적 본성과 오늘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요구 사이에서 결코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부부애

부부애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고 있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사목적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인간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각각의 인간은 가정 안에서 생명을 갖게되어 생명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역 안에 들어서게 된다.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며, 또한 사랑의 새로운 소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가 자기의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온 몸과 느낌을 통해서 표현했던 찬미를 우리는 기억한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창세 2,23) 이렇게하여 남자와 여자는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조화를 이루면서,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생명과 출산의 주역이 된다.

인간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되며, 이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내적 요소이며, 신비스럽고 생명력 있는 영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남녀간의 혼인 계약은 가정이라는 인간 사회 조직을 기초하는 제도적인 외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

지만 사랑의 내면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고 가정 생활을 활력있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되며, 따라서 혼인 안에서의 남녀의 사랑, 곧 부부애는 혼인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혼인의 목적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혼인의 근원적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의 사랑 때문에 혼인은 신성하며, 혼인이 성립되고 지속되며, 부부간의 신의가 지켜질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이 사랑 때문에 혼인은 결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4.1. 부부애의 특성

부부애의 원형은 배우자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은약적인 사랑이고, 그 실체는 상호 위탁이며, 그 본보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일치이다. 배우자들을 위한 하느님 사랑과 배우자 서로를 위한 배우자 상호간의 사랑은 혼인성사의 기초이며, 혼인성사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사랑의 역사(役事)를 이루시는 출발점이 된다. 오래 전에 하느님께서서는 사랑과 충성의 계약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오신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다. 곧 부부애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부부도 역시 서로의 애정과 변치 않는 충실로 서로 사랑”(『사목헌장』, 48항) 할 의무를 부부 상호간에 부여하는 사랑인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배우자들을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부 상호간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교회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부부애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고찰되며, 따라서 부부는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 사랑은 공의회가 말하고 있듯이 두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성사의 힘으로 신자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전 생애를 신망에 삼덕으로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자기 완성과 자기 성화에 전진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사목헌장』, 48항).

그러므로 부부애의 특성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현세적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 부부애는 두 배우자의 온전한 인격을 포함하고 또한 온전한 인격의 미덕을 추구한다. 『사목헌장』이 말하는 것처럼 부부애는 부부상호간의 자유롭고도 의지가 표현되는 행위에 의해 상대방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사목헌장』, 49항 참조) 애정의 육체적인 표현들 역시 부부애의 충만하고도 값진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부부애는 본능에 의한 자기만족적이고 일시적인 애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사랑은 배우자의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고 나아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나감으로써 자라나게 된다. 곧 부부애는 전진적이고 지향성이 있는 사랑이다.

4.2. 부부애와 부부행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말한다: “부부애는 혼인의 고유한 행위로서만 독특하게 표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친밀하고 깨끗이 결합되는 행위는 정당하고 품위있는 행위이다. 진정 인간답게 행해진다면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뜻하며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를 풍요하게 만든다” (『사목헌장』, 49항).

위에서 보는 문장에서처럼 『사목헌장』은 부부만의 고유한 행위를 부부애에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사랑이 요구하는 일치는 인격적 일치이지만 그 사랑의 특징적 표현은 부부행위이며, 이는 부부애 최고의 표현 방식이다. 그렇지만 부부행위 때문에 부부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애를 바탕으로 부부행위가 행해지고, 또 이런 행위를 통하여 부부애는 점차 성숙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부행위는 본질상 정당하고, 또 윤리적으로 선(善)인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로서 또한 성적(性的)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로써 인간 존재가 완전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인간이 단순히 성적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성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적 존재이기도한 인간에게 있어서 성(性)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유일한 친구로서의 남편이나 부인은 단순히 운동에서 만나는 파트너와는 다르다. 부부 관계 안에서의 상대방은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의탁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선택한 사람이다. 이러한 부부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행위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낳는다. 그 사랑의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자기 증여와 일치하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호 자기 증여를 통해 남녀 모두 보다 더 깊이 자신들을 이웃과 하느님께 개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현존의 표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상호 자기 증여와 부부행위에 의한 새로운 인간관계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 관계라는 표상으로 인식될 만큼 매우 깊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 준다고 봅니다”(에페 5,25.31-32).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부부의 성 생활을 부정하거나 죄악시 하거나 또는 평가절하하지 않는, 인격적 결합에 근거하는 영원한 계약 관계로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부부행

위는 부부의 삶 속에서 부부애가 가장 충만하고 인간답게 실현될 수 있는 정녕 아름답고 의미 깊은 실체가 되는 것이다.

성은 사랑과 우정, 나눔과 친교의 표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인간의 삶 전체와 관련이 있다.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행위는 부부 상호의 일치룰 이루는 최정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최정상은 반드시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삶의 바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환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행위를 통해서 부부는 마음과 몸을 서로 나누게 된다. 몸은 마음의 친교를 걸음으로 드러내는 자리이다. 한쪽 편에서 배푼 몸은 그가 사랑하는 다른 한 쪽의 가장 소중한 몸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신적 계약을 필요로 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의 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건강할 때 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지쳐 있을 때도 사랑해야 한다. 육체를 나누는 사랑은 상대방과의 만남을 즐길 뿐 만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기를 요구한다. 그 사랑은 일상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봉사와 애정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황 바오로 2세는 매우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에게만 국한된 정당한 행동을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묶을 할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이다. 온 몸으로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만일 그것이 현세적 차원을 포함해서 전 인격이 걸려있는 완전한 자기 증여의 징표와 결실이 되지 못한다면, 또 어떤 것을 보류하거나 미래에 달리 결정할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다면 한낱 거짓에 불과할 것이다” (『가정공동체』, 11항).

신적 계약을 통해 실현되는 성은 인간 생활에 봉사한다. 즉 부부행위를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은 자녀를 길러낸다. 여기서 성은 그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남자와 여자를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하느님의 협력자” (『가정공동체』, 14항)가 되게 한다. 즉 부부는 부부행위를 통해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능력, 연약한 어린 존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자신들만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들을 개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개방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만의 관심거리, 쾌락 등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부애를 일컬어 근본적으로 풍요롭고 창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을 지향하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사목현장』, 50항 참조). 결국 부부애와 자녀출산은 같은 문제이며 동일한 질서 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인간생명』에서 부부애가 결실 풍부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부부의 교류로써 이 부부애는 만족하지 않고 더 계속되며 새 생명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생명』, 9항), 더 나아가서 이 부부애는 책임 있는 부모의 사명까지도 요구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인간생명』, 10

항).

교황 바오로 6세는 또한 부부애는 죽기까지 충실하고 독점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랑 신부는 자유로운 몸으로써 의식적으로 혼인의 인연을 맺는 그 날 이미 그런 각오가 서 있어야 한다. 부부의 이런 신의는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고, 또 언제나 고상하고, 부부 서로를 위해서 풍성한 공로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신의는 혼인의 본질에서부터 요구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흘러나온다. (『인간생명』, 9항 참조).

5. 생명의 전달

가정이 생명에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참된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느님의 모습과 유사성에 따라 창조되었고, “인간 생명의 선물을 전달하는 데에 자유롭고 책임있게 협력함으로써 창조주요 아버지인 당신의 사랑과 능력에 특별히 참여하도록”(『가정공동체』, 28항) 불리운 남자와 여자는 창조주로부터 인간적이며 동시에 신적인 존재로 결정지어졌다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즉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에 봉사하는 것, 창조주의 첫 축복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는 것, 즉 출산을 통해서 하느님 모상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전달”(『가정공동체』 28항)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느님의 협력자들이며, 동시에 하느님처럼 자유롭고 책임감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러한 자유와 책임감의 실천 분야는 광대하고도 의무적이며, 또한 인간의 전체적인 전망 하에서, 그리고 인간의 자연 및 초자연적 소명의 총체적인 전망 하에서 인간 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당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면들은 책임감 있는 부성이라는 아주 미묘하고도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이해를 위한 많은 도움을 준다.

인간의 성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과 성의 본질적인 관련성을 부정”(『가정공동체』, 32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성(性)과 그 행위의 조정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들을 위한 기초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 7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은 바로 인간과 인간 소명의 전체적인 인간관이라는 시각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간생명』 1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교도권이 가끔 설명해 온 이런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 없다”. 이러한 두 가지 의의와 관련해서 모든 인공적 방법의 산아제한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

자라는 존재 안에 새겨주신 부부생활의 참된 의미에 반대되며, 또한 하느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최고의 폭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성은 어떤 경우에는 조작되고 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즉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다는 것은 생명에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부부간의 전적인 상호증여를 요구하는 부부행위의 내적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의 본질적인 목적이 결국 의도적으로 억압되는 것이다. 또한 가치를 상실한다는 것은 자주 부부중의 한 사람이 단순한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정공동체』는 “그와는 달리, 부부가 불임 주기법을 사용해서 성행위가 가지는 일치와 출산의 의미 사이에 불가분적 연루를 존중한다면, 그들은 하느님 계획의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작이나 변조없이 완전한 자기 봉헌의 본래적 역동성에 따라 성에서 혜택을 받을 것”(『가정공동체』 32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임신의 자연적 조절은 부부행위를 생명에로 개방시켜 놓고 있으며, 부부로 하여금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부부행위의 두가지 의의에 대한 충실한 존중 안에서 그들 자신만의 풍성한 부부애를 통하여 상호책임감과 자유를 강하게 체험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임신의 올바르고도 필요한 조건에는 “육체와 육체의 출산주기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가정공동체』, 33항). 이러한 조건을 위한 학문적 연구는 최근 30년 동안 그야말로 눈부시게 많은 발전을 보았다.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부부의 일치를 생활하고자 원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 각 지역의 많은 학자들은 단순하고, 무해한 그리고 안전하고도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은 산아제한의 자연 주기법, 서로간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그들의 요구 앞에 내놓았던 것이다. 자연 주기법은 여성의 생리 주기, 배란 주기 및 시기 등의 이론에 기초하면서 발전된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의 연구와 함께 결국에는 배란의 시기나 생리의 주기에 관계 없이 관찰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었고 이 방법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생리 주기 안에서 임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수, 배란 전 혹은 후의 불임기간등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절대적으로 여자의 점액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법으로서 여성의 점액은 단순한 하나의 표징으로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임신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 원동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부부가 임신할 수 있는 날들을 알아낼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자연적인 방법은 산아제한을 원하던 많은 부부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알려 준 것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의 가능성은 여성의 주기 중에서 불과 며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는 부부생활 중에서 임신과 불임의 과정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부부 상호간과 자녀들의 선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부부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연적 방법이 단순하게

사용의 규칙들을 알고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의 가치는 삶의 형태를 미리 준비하는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데에 있으며, 또한 서로의 관계 형성을 위한 하나의 특별한 방식으로서, 사랑과 자유, 그리고 공동의 책임감 발전을 위한 하나의 교육이 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출산의 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목표도 가지게 할 수 있는 자연적 방법들에 대한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부여하신 출산력의 생물학적 리듬과 더불어 그 리듬 안에서 생명력이 진행되는 경이스러운 과정들을 알게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육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방어함으로써 지켜야될 가치와 능력으로서의 출산력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완수해야 할 과제와 소명으로서의 고유한 성의 모습을 삶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만 할 것이다. 자기 육체에 대한 존중심만이 조속하고도 용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적인 경험 안에서도 생물학적인 능력으로서, 그리고 각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의 성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자연적 방법의 선택은 하느님으로부터 세워진 윤리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자기 고유의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인간, 즉 여자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대화,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가정공동체』, 32항)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부성(父性)의 충만하고도 자유로운 수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인공피임과 『가정공동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연주기법 사이의 윤리적 및 인간학적 차이를 인간의 육체적 범위에만 한정시킨다면, 충만하면서도 완전하게 존중되지 않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성에 대한 상이한 개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부인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부인의 출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전존재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고유한 출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상호 동의 하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사이의 대화를 요구한다. “부부일치의 영신적 육체적 성격”(『가정공동체』, 32항)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부부는 서로 대화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 방법의 사용은 부부상호간의 사랑과 이해를 위해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대화의 교육학으로 이끌어준다. 즉 삶의 한 형태로서 부부상호간의 전적인 자기증여의 한 행위로서의 성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사랑의 전체성과 인간적 증여의 전체성 안에서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자기증여를 가능하게 한다.

고유한 생물학적 리듬에 대한 의식, 내적 친밀한 대화, 육체적, 영성적 요구들에 대한 존중어린 이해는 분명 주기적인 절제를 받아들이도록 부부를 돕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기적인 절제는 부부 사랑의 일치를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상호간의 헌신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며, 그 헌신적인 상호 증여를 증명해 주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게 될 것이며, 또한 상호 신뢰의 요구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데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

주기적인 절제는 이외에도 육체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전체성 안에서 개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기적인 절제는 욕정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심을 더욱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능에 대한 의지의 지배는 의심할 것 없이 하나의 수덕적 방법이며, 이는 『인간생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부부사랑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인간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 요구되는 이러한 부부의 노력은 그들의 영성적 가치를 더욱 증가 시키고, 인격을 더욱 완전하게 발전시키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은 단지 부부들에게만 아니라 전체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 『인간생명』 21항에서의 언급처럼 부부의 순수함은 “가정생활에 안정과 평화의 풍부한 결과를 가져오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규율은 또한 배우자끼리의 배려와 존경을 북돋아 주고 참된 사랑의 원수인 이기주의를 몰아내며 서로의 책임감을 깊게 한다”.

올바른 질서에 대한 존중, 의무의 의미, 내적 순수함, 생명에로의 개방,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협조는 부부상호 간의 전적인 증여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항상 새로운 것이며, 심리적으로도 그에게 내면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의 원천이기에, 생기를 불어 넣는 원리이기도 하며 따라서 모든 구체적 교육 활동을 고무하고 지도하며, 사랑의 가장 소중한 열매인 친절, 항구함, 선함, 봉사, 공평, 자기희생으로써 교육 활동을 풍요롭게 하는 규범이다”(『가정공동체』, 36항).

따라서 부부 고유의 출산력에 대한 소유와 이해에 대한 관심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목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목표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 생명의 영성적인 풍요로움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생명에의 이러한 개방은 일종의 고정된 계획에 따라서 출산을 조정하고자 심히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에의 개방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부부의 자유이며, 생명의 전달을 위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방어한다.

제 3 발제

부부관계에 생명을 주는 의사소통

박은미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

이규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부부관계에 생명을 주는 의사소통

가톨릭교회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인 가정을 작은 교회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다름 아닌 카나의 혼인잔치였다(요한복음 2장)는 사실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두 사람의 반려자를 격려하고, 두 사람 가운데 태어날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을 선포하기 위해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혼인을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사회적 신념들이 힘을 잃어 가면서 혼인과 출산은 삶의 필수요소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겨지고, 혼인의 유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사’가 아니라 인간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맺고 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벌이 가족, 이혼과 재혼, 비혼(非婚)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자녀교육을 담당하던 가정 기능의 위축, 아버지 역할의 축소, 노인층 소외, 가정폭력 등 가정을 둘러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가정의 실태를 조사한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노인소외 등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이런 문제를 낳은 원인은 ‘가족간의 무관심’과 ‘대화부족’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신자와 일반인의 의식을 동시에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설문에 신자 57.8%, 일반인 53.4%가 응답한 것을 보면 신자나 일반인의 가정상황이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화의 정의를 내리면 ‘마주 보며 이야기함’이 될 터인데, 가정 안에서의 대화란 ‘대놓고 화내는 것’이라는 농담이 생길만큼 주로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대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대화’라는 용어 대신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사소통의 기본 철학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혼인 윤리

의사소통이 크게 듣기와 말하기라는 두 가지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 말하고 언제 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일이 의사소통 학습의 시작이라 강조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소통에서 기술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터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을 위한 소통인가’ 하는 철학을 공유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에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혼인 윤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흔히 윤리라고 하면 규율, 또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성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윤리란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내용, 즉 혼인윤리는 부부가 서로 일치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윤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 *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우자가 되겠다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 * 부부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의지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 * 남편/아내가 50:50이 아니라 서로에게 100% 전체를 온전히 내어 주는 일을 말합니다.

언뜻 막연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혼인 윤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은 다름 아닌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윤리를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로 이해하면 그것은 숨을 쉬는 일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윤리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총체적으로 응답하고 지원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못할 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기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 내가 배우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생명을 주기로 결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나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우리 부부관계에서 생명을 앗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생명을 주는 태도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부주의나 이기심, 무관심 때문에 생명을 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지 찾아내서 그런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배우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소통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우선이 되는 소통 방법은 배우자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입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도 그렇고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서로의 차이에 대해 말하기 꺼리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려는 경향 때문이거나, 차이점을 말해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을까,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히 차이점을 끄집어내어 대화하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는 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

거나,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에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족 배경은 부부간에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격은 원가족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그에 따라 행동양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애정을 쉽게 표현하는데 비해, 어떤 사람은 속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집안이 있는가하면 각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이나 금전 처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 출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생활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 차이도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도 신앙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나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다른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가 서로의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경우에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관계맺기 방식이나 자녀 양육, 개종의 가능성 등, 말하기 꺼려지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 때문에 정작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혼인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부부 사이의 차이점들은 더 많아지고 겉으로 더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차이점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서 차이에 대하여 대화하지 않으면, 차이의 폭은 점점 커질 지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나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한다면 차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고 묻어 둔다면 차이는 결코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부부 소통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듣기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두 번째 소통 방법은 <듣기>를 통해서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말을 꺼낼 때, 내용이 어떤 것이든 배우자의 말에는 우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는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말을 들을 때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우자의 느낌, 요구, 두려움과 희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잘 듣는 일에 장애가 되는 한 두 가지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① 우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만을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사실만을 듣는다면 배우자가 겪은 일과 그 일로 인해 느낀 배우자의 기분을 헤아려 주지 못하게 됩니다.

② 대화 도중 대답을 준비하느라고 못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룰 때 반격할 말이나 구실을 찾느라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말하는 배우자의 의도나 속뜻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말 자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③ 문제 해결에만 신경을 쓰느라 주의 깊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선입견도 듣기에 장애가 되는 태도입니다.

⑤ 기계적으로 듣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⑥ 우월감도 듣기에 장애가 되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가령 아이들의 생활태도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라면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내가 배우자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배우자가 아이들 문제로 어떤 말을 하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⑦ 말마디에 매달려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⑧ 진정시키기 위해 듣는 경우도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데 방해되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⑨ 전에 다 들은 이야기로 간주하고 귀를 닫는 것도 장애가 됩니다.

⑩ 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배우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버린 사고나 습관 때문에 제대로 듣기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새삼스럽게 이런 듣기 기술을 사용하기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듣기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 중 자신이 자주 드러내는 결립들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배우자의 느낌에 공감을 보이면 부부관계는 더욱 친밀해 질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는 우리의 부부관계를 더욱 친밀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갈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처음에는 시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 위험을 무릅쓰고 개방하기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세 번째 소통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려는 <개방하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부부관계에서 우리 각자는 배우자에게 사랑 받으려는 욕구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부부의 삶은 활기와 생명력을 갖게 되지만, 충족되지 못할 때는 자신이나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할 때 부부관계는 부자유스러워지고, 혼인해 있지만 혼인한 독

신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내 안에 감추고 있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느낌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면 위협을 무릅쓰기도 해야 합니다. 위협을 무릅쓴다는 말은 장애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배우자에게 나를 다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운 마음이나 고독감을 이기고 진정한 내 모습을 벗어 보여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신뢰하여 나는 선량한 사람이며 배우자가 나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나에게 대한 배우자의 사랑에 확신을 갖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열의를 지니고 있으며, 나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배우자와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것보다 내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더라도 결끄럽지 않은 상태로 있고 싶다는 강한 욕구나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전부 드러내 보여 혹시라도 배우자가 내게 거부감을 갖게 되면 어쩌나, 배우자에게 사랑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방하기 위해 때로는 위협을 무릅쓸 만큼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배우자에게 기꺼이 드러내 보이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라. 용서를 통한 치유하기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마지막 소통 방법은 용서를 통한 치유하기입니다. 생활하다보면 서로 기분이 언짢게 되는 일이 생겨, 배우자와 긴장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보면 먼저 용서를 청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장상태에 놓일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미안해’라고 말하면 이 말 한마디로 쉽게 서로가 동등한 입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용서를 청하는 말은 배우자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배우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장상태는 먼저 용서를 청하는 사람에 의하여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청하려 들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치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를 무척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황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용서를 청한다는 것은 용서를 받아 주든 받아 주지 않든 이제 모든 것을 상대방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용서를 청한 사람은 사건에 대한 아무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기쁘게 다가오지 않으면 용서를 청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청해보면 받아들여야 합

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이지 사람이 잘 나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청해오는 상대방의 마음만으로도 이미 용서받을 만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한, 상대방의 마음속에 담긴 분노와 죄의식은 더욱 커지게 되고 진정한 상처의 치유과정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 무엇을 위한 의사소통인가?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미명아래 배우자의 행동을 바꾸어 놓으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 이상 징후가 생겨도 자신의 비효율적인 소통방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기면서 상대의 성격이나 행동방식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지요.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는데도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갈등을 방치하거나,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호도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다가, 노력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식으로 곧바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부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발전을 위한 일이나 공부, 부부 각자의 취미활동이나 사교생활 등, 자기 자신의 안락에 초점을 둔 생활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활동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활동에 몰입하면서 배우자에게 소홀해지거나 배우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활동은 결국 우리에게 공허감과 고독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참 행복은 배우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응답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와 친밀하고 책임 있게 살면서 일치감을 맞볼 때 얻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치’라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므로, 각자 먼저 자립성을 지녀야 합니다. 일치하는 쫓대 없이 양보를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항복이나 위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부부간의 일치는 부부가 각자 지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밀하고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부관계에서 생명을 주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듣거나 말하기라는 기술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유도 문제가 발생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드러내는 불평이나 잔소리는 배우자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하나의 Sign 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부는 배우자가 드러내는 이런 갖가지 Sign 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생

명을 주는 일이 하루아침에 숙달되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하여 부부관계를 해칠 것인가, 내가 조금 노력하여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4 발제

자연출산조절 교육의 연실과 전망

이 숙 회

서울 행복한가정운동 대표

자연출산조절 교육의 현실과 전망

1. 시작하며

올바른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 「인간생명(Humanae Vitae)」이 발표된지 40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인간생명」을 발표하고 난 후 신자들에게 훈화하는 자리에서 회칙을 준비하는 동안의 심경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만큼 사명감의 무게를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 회칙을 준비하는 지난 4년 동안 무거운 책임감이 계속 되었으며 이 책임감은 솔직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대적 여론에 동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사회가 어렵게 받아들일 나의 의견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 멋대로 부부생활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몇 번이나 주저하였습니다”

행가운 발족 및 활동 33년 ! 우리나라는 인구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고 정부가 정책실현을 위해 적극 개입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녀의 수를 계획해야만 했으며 신자들조차도 피임의 사고방식에 빠져들어 자연적인 방법을 실천하는데 한계를 호소했으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이라 냉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오로 6세께서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칙은 인간적 진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쉽게 받아들여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바오로 6세 회칙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출산조절로써 실천하며 봉사해온 우리 행가운 활동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심어주신 신비는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2. 자연출산조절에 관한 무지와 편견

자연출산조절에 대한 이로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자연출산조절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서 그 활용을 적극 권하기도 하며, 어떤 의사들은 인공적인 방법의 유해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자연적인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출산조절을 하는데 있어 자연적인방법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보다 효과적(99%의 효과)이라는 사실을 일반 사람은 물론 보건관련 전문인들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임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불임부부들도 자신의 생식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의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이라면 무척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가하면 오히려 약이나 수술과 피임 장치쪽으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

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약이나 기타 장치들이 주는 효과보다 부부의 상호적 생식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3. 공정성에 요구

사회에서 발표되는 자연출산조절에 대한 처우는 오도적이며 불공평합니다. 전문가들이 대중을 오도한다는 사실은 비윤리적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실천 활용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뿐 아니라 정보를 받아야 할 일반인들 모두에게 불공정합니다. 산부인과학회, 보건복지부 등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온 방법과 활용자 효용률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정하게 알려야 합니다. 자연적인방법이 효용적이라 해도 주기적 절제(기다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의 출산조절법을 택하든 제일의 우선은 자신의 생식력을 바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부부가 함께 상호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적인 잡지들에 등장하는 출산조절법 비교 차트는 피임약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게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도입니다

- **효용도** : 얼마나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며 자연적인 방법 (증상체온법, 빌링스법)을 활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장점** : 전적으로 자연적이다. 어떠한 약이나 장치도 필요치 않다
비싸지 않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배우자간의 생식력을 이해한다.
모든 종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
과학적인 방법이다.
- **단점** : 매일 차트를 기록해야 한다.
절제에 대한 서로간의 결정을 요망한다.
- **부가적인 작용** :
신체적 부작용이 없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향상된 결혼과 성생활을 보고 한다.
어떤 부부들은 주기적인 절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건강** : 건강상 위험이 없다.
신체에 대한 압의 증가는 신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다.
- **자녀를 갖는 능력에 대한 장기간의 효과** :
아무런 역효과가 없다
불임 부부들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 발행)

4. 회칙과 자연출산조절

사실 자연출산조절법을 실천하는 부부들은 더 많은 이로운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전달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부애의 행동은 하느님의 계획과 성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생명은 그 형성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작용을 필요로하므로 신성시해야한다
(회칙 13항)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신뢰,
• 건강한 임신에 대한 확신 : 산전진단에 의탁하지 않음,
• 생명의 경이로움과 신비 체험 : 새로운 생명에 열려 있음
 임신은 하느님의 섭리 작용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
- 출산의미 깨달음 :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 체험
 계획하여 준비된 임신과 미처 준비되지 않은 임신조차도 환
 영할 사건임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인간생명 전달의 **mission** 의미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인간생명을 전달할 중대한 임무는 부부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다 (회칙 1항)

- 부부의 일치 : 부부 사랑의 관계성 증진 (자신의 사랑을 잘 표현하도록 성행위를 만들어 가며 행위를 진정하게 전적인 자기 증여를 표현하도록 한다)
 풍요로운 부부대화

피임을 지향하는 부부행위는 부부애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부부의 책임을 감소키며 그들을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한다. (회칙16항)

절제는 애정적 표현들을 빈약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 표현들을 영적으로 더 밀도 있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회칙 「인간생명」에 대한 묵상(Reflection on Humanae Vitae)-

임신을 연기시키고 싶은 부부의 바람으로 며칠 간의 가임시기를 기다린다면 아내는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남편에 대해 감사할 것이고, 자신의 생식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남편은 그러한 시간이 부정적인 시간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깊은 배려

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부부 관계의 유대를 증가시킵니다. 기다림을 받아들임에 대한 확신은 병들어 아플 때나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항상 서로에게 충실함으로 이어집니다. 부부에게 이러한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공피임은 부부간의 성적 대화의 가치와 서로간의 배려의 필요성과 기다림(절제)에 대한 선택을 빼앗아가는 것 일뿐입니다.

5. 행복한가정운동과 자연출산조절 교육

회칙 「인간생명(Humanae Vitae)」 발표 25주년 때 당시 교황께서는 NFP 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25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 하시고 자연출산조절 연구센터가 주최한 교육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자연출산조절법이 완전한 성가치관, 혼인과 출산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과학자들의 출산 주기의 도덕적 원리 뿐 아니라 안정성까지도 검증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하셨습니다. (회칙 24항)

과학에 힘입어 실험을 통해서 자연출산조절의 교육적 가치는 통합적인 성에 대한 이해와 혼인에 이은 출산에 공헌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신앙심과 확신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이 기관에서는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며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높이는 이름하여 자연적인 방법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단지 방법론적인 면 뿐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 -인류학상, 또는 도덕적 이유를 들어- 교육시킵니다. 모든 교육과 사목활동에 있어서 지도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 자체의 민감성과 포함하고 있는 가치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책임있는 출산에 대한 자연적인 방법의 올바른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연출산조절법은 전 인생에 걸친 것이고 바로 생명수호 활동입니다. 우리 인간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보호되어야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이 사회의 흐름에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칙 「인간생명」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피임과 피임사고방식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편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피임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거나 상황에 맞게 적당히 ...라고 하거나 더 큰 악의 초래를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은 허용해야한다는 식의 합리화된 변명을 슬그머니 내놓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많은 생명 연구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첫 시작, 생명을 품어내는 가정, 그 안에서의 부부 사랑, 잉태, 출산의 부분을 연구하고 담당하는 기관은 소외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가정운동의 현실이 바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7,80년대 양성했던 조직

들,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전문가들, 성직자들의 관심들이 다른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조직의 힘도 교회 안에서의 관심도 미미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잉태하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 봉사자 개개인의 열정은 식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자연출산조절을 실천하도록 도움주신 하느님의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6. 출산조절교육과 상담의 한계

행가운이 자연가족계획보급과 교육을 위해서 전력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연출산조절법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연적인방법의 기술적인 방법만 알려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문적인 상담가의 역량이 필요로 합니다. 부부의 갈등,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 안에서의 가족 간의 갈등, 내담자의 성격, 건강상태, 신앙적인 상태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함을 경험합니다. 일방적인 교육과 상담은 내담자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영성지도자, 의료전문가, 가족상담가, 성상담가, 자연출산조절 상담자 (생명윤리) .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들 모두가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의견을 통일 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 하십시오 (회칙 24항)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각 교구별 가정사목부가 출현하면서 원래의 가정사목의 목적으로 (행복한가정운동의창립 목적 : 모든 가정의 성화와 행복과 복지를 조장함에 있다)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가정문제에 관련 된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생명의 기초가 되는 자연출산조절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와 가족 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출산조절만 강조하는 것도, 생명을 기본 가치로 두지 않은 채 가정성화만 강조하는 것도 조화롭지 않습니다. 생명이 어우러져 녹아 있는 가정이어야 말로 온전한 가정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정은 생명의 성역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생명의 성역을 지키는 시작이기도하며 마지막 보루이기도합니다.

7. 행복한가정운동 (자연출산조절)의 미래

산아조절의 인공적 방법의 중대한 결과가 부부의 불신과 윤리 생활의 퇴폐의 길을 낳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회칙 17항)

- 낙태, 이혼, 가정폭력, 성폭력, 외도, 혼외출산의 증가,
- 불임부부 증가, 인공수정, 배아복제, 난자매매

인간의 인격을 몸과 영혼의 완전한 결합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심을 잃게 되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는 자신의 몸을 기계처럼 다루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교회가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법과 복음법의 구별없이 모든 법을 겸손되어 또 강하게 가르쳐야 할 맡은 바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회칙 18항)

제가 97년 빌링스박사 부부를 통해 교육을 받을 때 당시 그분은 “피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란법은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을 때 피임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아이를 더 이상 계획하지 않으려는 내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 부부와 함께 온 교사들이 많은 자녀를 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주기를 체험하게 되면서 임신과 관련된 자존감이 생성되고 어느 순간 생명에 대한 받아들임의 마음이 움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연출산조절을 지지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과 생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연출산조절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은 기본적 가치이며 부부는 이러한 생명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자유롭게 협력함으로써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현재 우리 주변엔 불임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며,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아기를 낳고자 하는 바람과 동시에 임신에 대한 불안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부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식능력이 건강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임신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권유하는 산전진단 검사를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엔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자녀 수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원하는 부부가 많았다면 현대 사회는 건강한 임신, 건강한 생식력을 이해시키는 교육으로서의 자연출산조절법이 요청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행복한가정운동이 지켜온 자연출산조절방법도 건강한 임신, 건강한 부부생활 (참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성교육)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힘쓰며, 그리하여 가정의 생명 문화를 바로 잡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102-3호

tel 02-727-2350, 2351, 2353 **fax** 727-2355

www.forlife.or.kr **E-mail** : forlife@catholic.or.kr